

# SR-71機事件을 中心으로 본 北韓의 對美敵對行態

全 宾 永

(서울大學校 師範大 教授)

次>.....

I. 序 論	7. 第三世界內에서의 反美鬭爭
II. 研究의 目的, 範圍 및 接近方法	V. 「레이건」行政府의 對韓半島
III. 北韓의 外交政策	政策과 北韓의 反應
1. 外交政策決定主要變數	1. 「카터」行政府와 「레이건」行政
2. 駐韓美軍과 統一問題	府의 外交政策 比較
IV. 對美敵對行態의 根源	2. 韓美關係의 強化
1. 韓國戰의 남긴 心理的 餘波	3. 北韓의 反應
2. 韓國民族主義	VI. SR-71機에 對한 「미사일」
3. 共產主義 政治理念	攻擊事件
4. 北韓內 權力鬭爭	1. 事件의 經緯
5. 北韓內部의 經濟的 어려움	2. 國際的 環境
6. 中蘇紛爭	VII. 結 論

## I. 序 論

北韓의 對美行態가 極히 敵對의인 것은 잘 알려진 事實로서 1981年 8月 26日에 發生했던 北韓側의 高性能 美國偵察機 SR-71機에 對한 「미사일」攻擊은 다시 한번 世上을 놀라게 하였으며 韓半島의 緊張을 高潮시켰었다. 北韓의 對美挑發行爲는 過去에도 1968年 1月의 「푸에블로」號 拉致事件, 1969年 4月의 EC-121機 撃墜事件 및 1976年 8月의 板門店 도끼事件 等에서 極度의 過激함을 보였었다. 昨年 8月의 SR-71機 「미사일」攻擊事件은 美·北韓敵對關係를 再三 確認시켜준 事例로서 北韓의 對美行態를 端的으로 說明해 주는 代表의 事件이었다.

軍事的으로 美國의 敵手가 되지 못하는 北韓의 對美挑發行爲를 우리는 果然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單純한 挑發事件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理解가 되지 않는 行爲임이 分明한 것 같다. 新聞紙上에 報道가 되는 것처럼

北韓의 對美敵對行爲를 미친 짓이거나 어처구니 없는 불장난으로 看過해 버리기는 어딘가 釋然치 않은 데가 있으며, 우리 韓國人們보다는 美國人们的境遇에 疑問點이 더욱 많은 것 같다.<sup>(1)</sup>

SR-71機 事件을 좀 더 深層의로 分析하여 본다면 北韓의 對美行爲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北韓과 對決狀態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教訓과 示唆點들을 던져 줄 것으로 보인다.

美國과 北韓과의 關係는 韓國戰의 經驗이나 理念 및 體制의 差異, 또는 美軍의 韓國駐屯 等으로 因해 相互間의 敵對感과 不信感이 매우 높은 것으로 特徵지워지며, 서로 非難과 경멸을 감추려 하지 않는다.<sup>(2)</sup> 물론 高度의 敵對關係가 恒常 持續되는 것은 아니고 起伏이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根本的인 美·北韓 敵對關係의 解消란 생각하기 힘들고 단지 政策 또는 國際環境의 變化에 따른 適應 내지는 戰略戰術上의 調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美·北韓關係의 變化에 우리가 神經을 쓰게 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解放 以後로 여지껏 韓·美關係는 우리의 安保 및 外交政策의 主軸이 되어 왔으며, 韓國의 政治·經濟·社會·文化發展과도 緊密한 聯關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韓·美關係의 密着性으로 보아 美·北韓關係의 好轉이나 惡化는 即刻的으로 우리에게 影響을 미치며, 特히 韓國의 安保的側面에서 重大關心事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카터」行政府의 對北韓政策에 憂慮를 表明했던 것도 이 때문이며, SR-71機事件과 같은 「레이건」行政府에 對한 北韓의 對美敵對行態에도 至大한 關心을 갖게 되는 것은 結局 美·北韓關係가 우리自身의 問題와 直結되어 있기 때문이다.

## II. 研究의 目的, 範圍 및 接近方法

### 1. 研究의 目的

本研究의 目的是 SR-71機事件이 發生하게 된 根本的인 背景 및 當時의 國

(1) 例로 SR-71機 事件에 關한 美國務省「브리핑」을 기다리던 어느 美國記者가 “그들이 미쳤어, 도무지 理解가 안 가”라고 獨白을 하듯이 말했다고 한다. 『朝鮮日報』, 1981. 8. 29. 4面.

(2) 休戰會談 U.N.側 首席代表 「해리슨」 中將이나 「푸에블로」艦長이었던 「부커」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을 動物이나 犯罪人이라고 非難했으며, 反面 北韓共產主義者들은 駐韓美軍들이 야수적인 行爲를 저지른다고 機會있을 때마다 非難宣傳을 하곤 한다.

心理的인 方法에서는 指導層 및 成員들의 過去經驗이나, 自身 및 相對方에 對한 「이미지」나 信念體系 等과 함께 民族主義나 共產主義 같은 理念의 要素들이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된다.

그러나 微視的인 心理的 方法만으로는 一國의 對外政策이나 行態를 充分히 納得할 수 있도록 說明할 수 없다. 指指層의 政治性向이나 그 社會를 支配하는 「이데올로기」外에도 數많은 國內外의인 變數들이 對外政策決定 및 遂行에 影響을 미친다. 理念이나 指導層의 性向이 基本路線을 提示하고 推進方向을 設定하는 데는 論難의 餘地가 없으나, 國際環境이나 그 社會의 諸與件이 心理理念的인 面을 強調하는 政策을 許容하지 않거나 修正을 强要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같이 復雜하고 相互依存의 國際化時代의 實現인 것이다. 超强大國인 美國의 「베트남」과 「이란」에서의 뼈아픈 經驗이라든지, 現在 蘇聯의 「아프가니스탄」과 「폴란드」事態로 苦憫하고 있는 것은 實證의 例라 할 수 있다.

美·北韓關係를 研究하기 爲한 適合한 方法으로는 上記의 두 가지 方法을 모두 考慮한 社會心理的인 補完的 接近方法(Social-psychological Approach)이 있다. 이 方法에 依하면 北韓이나 美國이라는 行爲者는 相對方이 보내거나 表示한 反應을 認知하게 된다. 認知란 感覺들을 通해서 對象을 알게 되는 것으로서 心理的 必要性이나 信念體系에 의해 形成되는 外部로부터 들어오는 戰刺을 選別하는 過程이며, 따라서 認知過程은 對象이나 認知할 當時의 狀況과 傳達「소스」(Source) 또는 社會化 및 文化 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다.<sup>(5)</sup> 社會·心理的 接近方法은一般的으로 人間의 行態를 研究하는 方法으로서 이 方法의 焦點은 둘 以上의 行爲者들이 相對方의 目標나 「이미지」(image) 等을 評價하거나 影響力を 發揮하기 爲한 相互行爲나 反作用(Social Interaction)에 두고 있으나, 國家들의 行態를 研究하는 데도 有益하다고 켈만(Herbert C. Kelman)은 指摘한다<sup>(6)</sup>. 「켈만」이 例舉하는 社會的 要素들(Societal factors)은 「톰슨」과 「매크리디스」가 外交政策의 決定要素로서 提

(5) Samuel A. Kirkpatrick and Lawrence K. Pettit,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Political Life* (Belmont, Calif.: Duxbury Press, 1972), pp. 3-4, 199-201.

(6) Herbert C. Kelman, "Social-psychological Approaches: Definition of Scope," in Herbert C. Kelman, ed., *International Behavior: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5) p. 22.

示하는 事項들과 類似할 程度로 廣範圍하다.<sup>(7)</sup> 即 「켈만」은 社會的 要素의 범주속에 地政學의 要素나 資源 및 政治·經濟狀態 같은 要素外에, 國際 政治나 外交 또는 同盟關係같은 國際的 要素들을 包含시키고 있다.<sup>(8)</sup> 이는 무리한 概念定義일지도 모르나 解釋을 넓혀서 國家를 “國際社會”라는 立場에서 보거나, 緊密해진 오늘날의 좁아진 世界를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例를 들면 北韓의 中·蘇와의 同盟關係나 韓·美同盟關係는 北韓의 對美行態 또는 北韓에 對한 美國의 行態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北韓의 對美行態를 研究하는 데 必要한 몇 가지 社會·心理的 要素들을 北韓의 對外政策과 關聯시켜 가면서 檢討해 볼 必要가 있을 것 같다.

### III. 北韓의 外交政策

#### 1. 外交政策決定 主要變數

韓國과 마찬가지로 南·北分斷 및 이에 따른 南·北韓間의 對決이라는 特殊한 狀況이 北韓外交政策決定 및 遂行에 絶對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sup>(9)</sup> 蘇聯이라는 共產主義國家에 依하여 北韓地域이 日帝治下에서 解放되고 金日成政權이 蘇聯의 絶對的인 支援을 받아 樹立되었다는 事實과, 競爭 및 敵對關係에 있는 韓國을 世界最强이며 蘇聯의 主敵인 美國이 政治·經濟·軍事·外交의 으로 積極 支援하고 있다는 宿命의 事實이 北韓外交政策의 方向을 決定하거나 또는 크게 制約하고 있다. 美·中·日·蘇四大強大國의 影響과, 理念 및 體制를 달리하는 韓國과의 對決을 考慮할 때 北韓의 外交政策은 쉽게 把握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北韓外交政策을 深度있게 理解하기 위해서는 北韓과 聯關되는 心理·理念

(7) 註4 參照.

(8) Herbert C. Kelman, “Societal, Attitudinal and Structural Facto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Clagett G. Smith, ed., *Conflict Resolu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1), p. 447.

(9) 南·北分斷이란 狀況이 北韓의 對外政策은 물론 對內政策까지도 거의 支配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北韓은 지난 30餘年間 南·北分斷에서 派生되는 여러 가지 問題를 管理하는데 그 外交的努力을 集中하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李永鎭教授는 指摘한다. 李永鎭, “北韓의 對南政策：目標와 戰略” 高秉喆外共著, 『北韓外交論』(서울: 慶南大 極東問題研究所, 1977), p. 19.

的인 要素들이나 國內外的인 社會的 要素들을 좀 더 자세히 檢討·評價해 볼 必要가 있다. 共產主義나 民族主義라는 「이데올로기」의 要素는 北韓으로 하여금 共產主義者들이 支配하는 單一民族國家로 統一하겠다는 外交政策目標 및 分斷狀況을 解決하는 方案을 提示하여 주고 있다.<sup>(10)</sup> 共產國家인 中共 및 蘇聯과의 地理의 隣接은 그들 兩國과의 善隣友好政策을 追求하게 하며, 深化된 中·蘇紛爭은 難處해진 北韓으로 하여금 어느一方에 側向되지 않도록 對中·蘇等距離外交를 摸索하게 만든다. 北韓이 對中·蘇政策에 神經을 쓰는 것은 過去로부터의 軍·經援助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北韓自體의 經濟·軍事能力만으로는 韓·美兩國에 對한 安保態勢도 劣勢일 뿐 아니라 北韓內의 社會主義經濟建設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1)</sup>

北韓의 外交政策을 心理의 面에서 좀 더 檢討하여 본다면 北韓의 歷史·文化的인 背景은 蘇聯보다는 中共에 對해 더욱 親近感을 느끼게 하며, 金日成 個人的 過去經驗 또한 心理的으로 中共과 親密感을 더욱 느끼게 하고 그것이 對中·蘇政策에 反映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sup>(12)</sup>

韓國戰期間 동안 北韓의 對美鬭爭經驗이나 駐韓美軍의 存在는 美國을 極度로 敵對視하는 反美政策을 持續케 하며, 北韓指導層의 日帝植民地 및 抗日鬭爭經驗은 北韓으로 하여금 反日政策——特히 日本의 武力增強 및 韓·日結束을 反對하는——을 推進케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點들을勘

(10) 「이데올로기」의 役割에 關해서는 Vernan S. Aspaturion, "Soviet Foreign Policy," in Macridis, *op. cit.*, pp. 170-78.

(11) 北韓은 解放後 1970年까지 無償援助 16億 5,386萬弗(80.9%)과 物資借款形式의 有償援助 3億 8,918萬弗(19.1%)을 받았는데, 이중 蘇聯援助가 全體의 47%를 擔當하고 中共이 提供하였다. 總援助의 81%가 1950~1960年間에 集中 提供되었으며, 70年代에는 主로 借款形態로 支援되었다. 中共은 1971~76年間 經濟技術援助協定(70. 10. 9. 締結)에 의거하여 約 2億弗의 無利子借款을 提供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蘇聯의 1971~75年 借款供與額은 9億 200萬弗로 되어 있으며 蘇聯은 1949~70年間의 50個와 1970~1975年까지의 10個로 總 60個의 工場施設을 支援했고 北韓의 2次 7個年計劃(1978~1984)에도 關與하여 現在 16個의 產業施設이 4億弗로 推計되는 蘇援助에 의하여 建設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南炫旭作成, 『中·蘇의 對北韓援助 및 貿易現況, 1946~1978』(서울: 國土統一院, 1979), 5面과 18面.

(12) 「하와이」大學校의 徐大肅教授는 金日成의 學校生活 等의 成長背景, 言語 및 滿洲에서의 活動, 韓國戰때의 中共支援과 對蘇經驗 等으로 보아 中共과 더 親近感을 느끼며, 主體思想의 起源도 反蘇·親中運動이며, 中蘇紛爭에 있어 서도 金日成은 언제나 中共便이고 中共을 먼저挑撥하는 것은 삼가해 왔다는 見解를 피력한 바 있다(1980年 4月 22日 「아랍」文化會館에서 있었던 韓國 國際政治學會 發表會).

案할 때 北韓이 어째서 休戰된 지 30년이 되도록 繼續 高度의 敵對感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2. 駐韓美軍과 統一問題

그러나 北韓이 가장 美國을 憎惡하고 두려워하는 理由는 休戰後 現代化된 武器로 武裝한 美軍이 韓國땅에 殘留하고 있다는 事實과, 그들로서는 美國이라는 巨大한 國家를 相對로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挫折感을 안고 不安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安保上の 理由때문이다. 世界最强國인 美國과 持續的인 對決狀態에 있는 北韓이 느끼는 不安全感(Sense of Insecurity)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北韓은 體制保存과直結되는 美軍撤收問題를 끊임없이 提起하고 있는 것이다.

駐韓美軍問題는 北韓指導層이 體制保存에만 神經을 쓴다면 深刻한 問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美國이 蘇聯과 中共의 被保護國인 北韓을 侵攻할 可能性은 極히 희박하기 때문이다.<sup>(13)</sup> 美國은 蘇聯과의 危險한 軍事的 對決을 決코 願치 않으며, 戰略的으로 重要한 中共과의 好轉된 關係를 그르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물론 美國이 偵察行爲는 繼續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韓半島에서 安定을 깨는 變化가 發生하지 않도록 豫防하기 為함이 더 큰目的이지, 北韓을 威脅하고 새로운 戰爭을 準備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北韓指導層도 어느 程度는 알고 있을 것이다. 美國은 韓國이 너무 積極的인 對北政策을 取하는 것조차도 같은 理由로 願치 않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sup>(14)</sup> 한마디로 美國은 現狀維持를 追求한다.

그러면 왜 北韓이 그토록 美軍의 韓國駐屯問題를 가장 큰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北韓 金日成政權의 最高政策目標가 韓半島의 共產化

(13) 1961年 7月 6日 締結된 朝·蘇條約 第一條와 同年 7月 11일 잇달아 締結된 朝·中條約 第二條는 “條約當事國中 어느 한쪽의 被侵時 다른 國家는 即時 軍事 및 其他 援助를 提供한다”라고 明示하고 있다. 『勞動新聞』, 1961年 7月 7日, 1面 및 同年 7月 12日, 1面.

(14) 「닉슨독트린」의 實現으로 1971年에 駐韓 美7師團 2萬兵力이 韓國에서 撤收하고, 1975年 4月 越南이 敗亡하였으며 金日성이 中共을 訪問하여 “韓半島에서 戰爭이 나면 胜을 것은 休戰線 밖에 없다”는 式의 好戰的 發言을 거침없이 하자, 韓國은 強力한 自體防衛能力 保有에 關心을 보였고 核武器開發에도 關心을 보이자 美國의 壓力에 直面했었다.

統一이기 때문이다.<sup>(15)</sup> 韓半島를 統一하려면 駐韓美軍이 남아 있는 限 勝算이 거의 없는 셈이니 統一의前提條件으로 美軍撤收를 繼續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駐韓美軍이 單一 民族國家의 統一을 가로막으며 韓半島의 緊張造成을 持續시킨다는 主張을 하면서, 北韓은 南侵意圖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南쪽에서 軍備增强等으로 北을 威脅하고 있다는 式으로 그들의 軍備增强事實을 否認한다.<sup>(16)</sup> 最近에 와서는 이러한 北韓側 主張을 中共이 代辯해주면서 美軍撤收要求에 同調를 해 오고 있는 것도 周知의 事實이다. 물론 中共이 中·蘇紛爭으로 因해 戰略的으로 重大한 利益이 걸려있는 北韓地域을 놓고 蘇聯과 競爭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美·中共關係正常化以後로 그러한 中共의 發言이 過去보다 說得力を 지닐 수 있다는 點에서 각별한 警戒를 要한다.<sup>(17)</sup>

駐韓美軍問題가 北韓의 統一目標와 어떠한 聯關이 있는가를 보려면 解放과 함께 南韓地域에 進駐했던 美軍이 500名程度의 美軍事顧問團要員들만을 남기고 1949年 6月末까지撤收를 完了한지 不過一年만에 韓國戰爭이 勃發했던 事實과, 지난 30餘年間 美軍이 休戰以後 繼續하여 駐屯함으로써 다시는 武力에 의한 韓半島 統一을 試圖해 볼 機會를 얻지 못했다는 데서도 確認될 수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自然的으로 發生하는 것은 對美憎惡感과 敵對行爲임을 알 수 있다. 「로스·스태그너」(Ross Stagner)에 의하면 敵對感은 두려움과 挫折感에서 發生되는 것으로서 權力이나 名譽를 잃게 되는 두려움 또는 처벌을 받게 되거나 身體的威脅을 當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sup>(18)</sup> 北韓이 認知하고 있는, 또는 經驗한 美國의 軍事力은 莫強한 것

(15) 北韓은 赤化統一目標를 政權樹立以來로 公開的으로 一貫性 있게 追求하여 왔으며, 勞動黨規約 前文에도 黨의 當面目的이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여 全國的範圍에서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的 革命의 課業을 遂行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是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라고 明示하여 좋았다.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1945~1980』(서울, 1980), 795面.

(16) 美下院의 「솔라즈」議員이 北韓을 다녀온 후 가진 1980年 8月의 記者會見內容에 依하면, 北韓은 한국측이 훨씬 強한 軍事力を 지니고 있다고 主張하면서 自己側 戰力を 낮게 評價했다.

(17) 鄧小平은 讀賣新聞의 渡邊과의 會見中(1980. 2. 29.)에 “中共은 韓半島에는 緊張狀態가 存在하지 않는다고 繼續 말해 왔다. 北韓의 金日成은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自主·平和의으로’라고 말하고 있으며 武力統一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始終一貫 이를 支持하여 왔다.”라는 北韓옹호 發言을 한 바 있다. 『讀賣新聞』, 1980. 3. 30. 3頁.

(18) Ross Stagner, "Psychological Aspects of International Conflict"(Belmont, Calif.: Brooks, Cole Publishing Co., 1967), pp. 73-79.

이며, 北韓指導層은 對美關係를 잘못 다루면 存亡의 危機를 맞이하게 됨을 알고 있다. 實力面의 劣勢로 效果的인 對美策을 講究할 수 없는 北韓의 立場에서 보면 美國은 無限히 밉고 두려운 存在일 것이다며, 美國의 政策이나 行爲들을 敵對的인 視角에서 볼 것임에는 疑問의 餘地가 많지 않다.<sup>(19)</sup>

그러나 언제나 挫折感을 안고만 지나는 것은 아니라 北韓같이 작은 나라가 境遇에 따라서는 무모하리만큼 大膽한 對美行爲를 挑發하기도 하는데, 지난 8月의 SR-71機에 對한 「미사일」攻撃事件도 一例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러한 對美行爲의 根底에는 누적된 敵意感과 挫折感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北韓의 國內外狀況 또는 與件에 따라서 爆發될 수도 있고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對美挑發後 누구도 北韓을 支援해 줄 展望이 없다면 感情의으로만 重大事態를 야기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相對方이 어느 程度의 反應을 보이리라는 計算없이 超强大國에 挑發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sup>(20)</sup> 即 北韓도 주어진 周邊狀況에 따라 行動하는 데는 다른 國家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北韓이라는 社會가 共產主義國家들조차 納得하기 힘들 程度로 理念의硬直性과 社會의 閉鎖性을 보이고 있는 點은 充分히 北韓의 對外行態를 研究하는 데 考慮되어야만 할 것이다.

SR-71機事件이 일어난 遠因 및 近因들과 그러한 事件이 일어날 수 있었던 國際의in 環境(logic of situation)을 檢討·分析함으로써 北韓의 對美行態를 보다 正確히 把握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北韓과 對決하고 있는 우리와의 立場에서도 必要할 것으로 보인다. 即 北韓의 對美行態를 通해 北韓의 對南政策 等을 把握하고 評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V. 對美敵對行態의 根源

北韓에서는 住民들에게 美國을 侵略的인 國家라고 持續的인 政治教育을

(19) John R. Raser는 目的達成이 抑止 당하면 두려움과 敵意가 생길뿐 아니라 外部環境을 敵對的으로 보게 된다고 說明한다. "Learning and Affect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James N. Rosenau 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N.Y.: The Free Press, 1969), pp. 437-440.

(20) 「무에블로」號 事件이나 EC-121機 事件時의 蘇·北韓間 緊密한 關係, 越南戰으로 因한 美國의 國內外의으로 處한 狀況等을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시키는데, 심지어는 高宗 3年(1866)에 發生했던 「셔만」號(General Sherman)事件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美國은 歷史的으로 韓民族의 敵이라고 묘사한다. 어느 國家를 敌이라고 斷定했을 때 그 「이미지」때문에 그 敵國과 關聯되는 일들은 正確하게 認知되기 힘든 것은 美·北韓關係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케네스 E. 블딩」(Kenneth E. Boulding)은 “한 國家 가 다른 國家에 對하여 對應할 때, 客觀的인 現實보다는 주어진 狀況의 「이미지」(image)에 應答하는 것”이라고 이를 說明한다.<sup>(21)</sup> 이러한 主觀的인 認知 및 評價는 固定된 敵이라는 「이미지」가 成立되었을 때 더욱 强한 것이며 그러한 信念體係(Belief System)를 바꾼다는 것은 容易하지 않을 뿐 아니라 否定的인 「이미지」는 “選別的인 認知”(selective perception) 때문에 더욱 强化된다는 것이다.<sup>(22)</sup>

敵의 「이미지」란 恒常 나쁘고, 侵略的이며 非道德的이기 마련이다<sup>(23)</sup>. 北韓의 主敵인 美國의 「이미지」도 極度로 否定的인데 몇 가지 主要原因들을 살펴 볼 必要性이 있을 것 같다.

### 1. 韓國戰이 남긴 心理的 餘波

韓民族史上 가장 極深한 被害를 끼친 韓國戰爭(1950~53)은 北韓의 敵對的인 對美觀形成에 決定的인 役割을 했다고 보아야 하겠다. 北韓立場에서 볼 때, 가장 고통스러운 記憶은迅速한 美軍의 介入으로 赤化統一에 失敗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無數한 人命被害 및 北韓地域의 主要施設과 都市들이 美空軍의 戰略의 爆擊으로 大量破壞된 事實을 들 수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對美非難宣傳에 依하면 韓國戰期間 美機들이 8,700個의 工場들을 비롯하여 600,000家屋과 5,000의 學校 및 公共施設들을 破壞 또는 燒失

(21) Kenneth E. Boulding,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al System," i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III, No. 2 (June, 1959), p. 120.

(22) 人間은 有利한 것은 認知하고 不利한 것이나 情報들은 흘려버리거나 歪曲함으로써 緊張을 避하려는 屬性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認知上 均衡을 維持하려는 傾向이 있다고 「시결」은 主張한다. See Robert S. Siegal, "Effects of Partisanship on the Perception of Attitude Change," in Kirkpatrick and Pettit (eds.), *op. cit.*, p. 218.

(23) 敵과 自己를 判斷하는 기준은 明白히 二重의이라고 「홀스티」는 說明한다. See Ole R. Holsti, "Cognitive Dynamics and Images of the Enemy," in Kirkpatrick and Pettit, *op. cit.*, p. 227".

시켰다는 것이다.<sup>(24)</sup> 물론 이러한 엄청난 數字는 宣傳目的을 爲해 과장된 것이고 韓國戰勃發도 北韓의 南侵으로 始作된 것이니 그들이 自招한 自業自得이라 하겠지만, 復舊工事 等을 爲해 그들이나 一般 北韓住民들이 當했을 고통은 무척 커울 것이며 그 가운데서 反美感情이 자랐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6·25를 經驗하지 못한 젊은 層에게 繼續 戰爭期間의 反美鬪爭談을 들려줌으로써 反美意識을 고취시키려는 努力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젊은 層에게 그들이 經驗하거나 認知하는 바를 轉移시킴으로써 反美敵對感을 持續시키는 社會化 過程이 되는 것이다. 좋은 예로는 金日成 自身이 어린 學生들에게 “너희들의 父母나 친척들이 美帝에 對抗해서 싸우다 목숨을 잃었으니 너희들은 敵이 누구인가를 잊어서는 안된다. 美帝國主義者들은 우리 國家와 우리 階級의 敵이며, 너희들은 우리의 敵들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式으로 지극히 선동적이고 感情的인 訓話를 한 때서도 찾아 볼 수 있다.<sup>(25)</sup>

## 2. 韓國民族主義

韓國動亂 못지 않게 北韓의 對美行態에 影響을 주는 心理的 要素로는 民族主義라는 「이데올로기」를 들 수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韓國이 美國에 의해 獨占되었다고 主張하면서, 駐韓美軍의 存在가 民族의 統一과 發展을 沮害하는 根本障礙이므로 이를 除去하고 統一을 이룩하는 것이 그들의 使命이라고 主張하여 宣傳하고 있다. 이렇듯 北韓指導層은 民族主義感情을 最大限으로 利用하여 對外的으로 統一名分을 내세우고 對內的으로는 經濟建設을 위해 住民들을 啓發 없이 動員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sup>(26)</sup>.

反美感情을 鼓吹시키기 爲하여 北韓指導層은 不斷히 反美宣傳을 強調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心血을 기울이는 對象이 韓國에 있어서의 美國役割이다. 韓國은 美國에 의해서 政治・經濟・軍事・社會・文化 等 모든 分野가 철저

(24) Oemusō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emorandum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Tokyo: General Association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1962), p. 29.

(25) Baik Bong, *Kim Il Sung*, Vol. III (Tokyo: Mirasha, 1970), pp. 393-94.

(26) 民族主義는 한 國家の 目標와 活動을 美化하고 正當化시킬 뿐 아니라, 그 國家の 目標와 活動의 方向까지도 提示할 수 있는 強力한 「이데올로기」라고 「갓쓰」는 說明한다. Ses Daniel Katz, "Nationalism and Strategies of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in Clagett G. Smith (ed.), *Conflict Resolu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1), p. 418.

히 支配當하는 地獄이며, 韓國人們의 不幸과 苦痛의 根本은 “美帝에 의한 韓國占領”이라는 式으로 住民들에게 모략선전을 되풀이하고 있다. <sup>(27)</sup>

北韓社會가 徹底한 閉鎖社會라는 點을 생각할 때, 이러한 歪曲되고 誇張된 宣傳이 어느 정도는 批判없이 받아들여진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民族主義라는 強力한 心理的 要素는 單純한 合理的 判斷을 흐리게 함을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런고로, 美軍이 駐屯하는 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民族感情을 利用한 反美宣傳을 對內外的으 繼續할 것이며 그러한 過程속에서 對美敵對感情이 持續되고 또한 자라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sup>(28)</sup>

### 3. 共產主義 政治理念

오늘날 國際的으로 共產主義라는 政治理念의 退潮現象이 현저하게 눈에 뜨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北韓은 理念의인 硬直性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共產主義를 傳播한 蘇聯과 中共이 크게 修正된 路線을 걷고 있는데 反하여, 北韓만이 唯獨 아직도 共產主義理念에 執着하여 非共產世界에 對하여 敵對의in 政策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된다.

民族主義가 單一民族國家를 指向케 하듯이 共產主義라는 「이데올로기」는 共產主義社會建設이라는 目標를 提示한다. 北韓의 境遇에는 韓半島의 共產化統一이라는 目標가 定해지는 것이고 자연히 自由民主主義社會를 指向하는 우리 目標와 相衝이 되는 것이다. 北韓이 美國이나 韓國이라는 資本主義社會를 바라볼 때 共產主義라는 「렌즈」를 通해서 보기 때문에 資本主義體制에 對하여 나쁘고 非道德의in 評價를 내리게 되는 것이며, 「마르크스-레닌」主義는 따라서 美·北韓間의 葛藤을 일으키는 根源이 된다. 北韓指導層은 美國을 侵略勢力의 本山처럼 非難하며, 美國社會는 몇몇 特權層 사람들만 잘 살고 大部分은 抑壓과 착취를 當하며 失業과 가난에 시달리는 社會로 北韓

(27) 民族이 優先되어야 한다는 主張은 지난 80년 10月의 勞動黨 6次黨大會에서도 크게 強調된 바 있다(『勞動新聞』, 80年 10月 14日字 9面에 掲載된 金仲隣의 討論內容参照).

(28) 『勞動新聞』에 나타난 韓國과 關聯된 對美記事量(1955~1972年까지) 分析하여 본 結果, 駐韓美軍問題가 全體(6,842 case)의 12.3%(841 case)로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는 對北挑發非難(5.9%), 美軍에 의한 犯罪行為(3.0%), 戰爭準備非難(2.9%), 韓國內反美行為(1.7%), 韓國戰 이야기(1.4%), 및 韓國經濟 예속化 非難(1.1%)順이었다. See In-Young Chu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Behavior Toward the United States," in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I, No. 1(1981), pp. 65-67.

住民들에게 宣傳하고 있다.<sup>(29)</sup> 이렇듯 共產主義理論에 立脚한 美國觀이 美·北韓關係를 繼續 否定的인 方向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며, 특히 固定化된 敵「이미지」를 勘案할 때 美·北韓關係를 敵對的으로 規定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心理的·理念의 要素들 外에도 北韓의 對美行態에 影響을 주는 몇가지 社會的인 要素들(societal factors)을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

#### 4. 北韓內 權力鬭爭

直接的으로는 北韓指導層間의 權力 다툼과 對美行態와는 關係가 없으나, 北韓의 指導層이 反美立場을 取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勢力を 維持하기가 힘들 것이다며, 金日成自身도 反美態度를 突變하기는 힘들 것이다. 金日成 한 사람만 보아도 個人的인 動機때문에——政權掌握 및 維持——反美意識을 北韓當에 必要以上으로 심어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政敵들을 숙청하거나 增產運動을 벌릴 때는 美國이라는 外敵을 利用하곤 하였다. 一例로 體戰直後 朴憲永 等의 南勞黨一派를 除去할 때 美國「스파이」라는 罪名을 씌웠으며, 美國이라는 말 自體가 反逆이나 反國家活動과 聯關되어 「타부」처럼 되어 버린 것이 北韓의 實情이다.

北韓에서 金日成이라는 絶對의 權力者가 反美鬭爭을 強調하는 한 그의 影響을 받는 一般住民들의 對美態度가 크게 바뀌기는 힘들 것임을 알 수 있으며, 反美鬭爭을 強調하지 않아도 될 合法的으로 政權을 掌握한 實力者가 登場한다면 美·北韓關係가 再評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反美思想을 30年 以上 強調한 사람들이 權力構造의 最上層에 남아 있는 限그들의 影響力이 對美關係에 繼續 미칠 것이다며, 對美强硬派들의 發言이 重要視되리라는 點을 無視할 수 없다.

#### 5. 北韓內部의 經濟的 어려움

北韓의 가장 重要한 目標가 優先 北韓地域에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 自

(29) "On Communist Education," in *Selected Works of Kim Il Sung*, Vol. II. (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71), p. 257.

立할 수 있는 社會主義經濟를 建設하겠다는 것이며, <sup>(30)</sup> 이를 바탕으로 勢力を 擴散하여 韓半島全體를 共產化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為해서 北韓指導層은 끊임없이 住民들을 生產活動에 動員하여야 하며, 北韓地域의 社會主義力量을 特特히 하여 美國勢力を 置아내고 赤化統一을 完遂하는 것이 그들의 任務라고 反復的으로 住民들에게 注入시킨다.

國內의 어려움을 緩和시키기 為하여 外敵을 利用하는 것은 北韓처럼 一人手中에 權力이 集中되고 閉鎖된 社會에서 훨씬 容易할 것이다. 66年 10月에 7個年經濟計劃을 3年間 延長하기로 決定한 後에 急激히 好戰的으로 되어 버린 北韓의 對美・對南行態와 非難攻勢를 생각할 수 있다. 北韓內의 政治 또는 經濟事情이 힘들어질 때마다 美國의 政策이 侵略的이라든지 韓國땅에서 美軍을 몰아내고 統一을 앞당기기 為한 것이라는 等으로 美國이라는 存在를 利用하여 北韓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目標를 推進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過程에서 北韓의 對美敵對感이 持續됨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 6. 中・蘇紛爭

北韓은 蘇聯 및 中共과 모두 不可分의 緊密한 關係를 맺고 있으며, 그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同盟國들이다. 그러나 北韓의 對中・蘇關係는 60年代初부터 本格化하여 지금껏 持續되어 오는 中・蘇間의 深化된 紛爭으로 因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쿠바」事態直後에는 中共과 步調를 맞추다가 蘇聯으로부터의 援助中斷이라는 壓力에 逢着했었으며, 65年初 國際情勢에 따라 蘇聯과 和解를 하자 中共으로부터 壓力を 받기도 하였다. 서로 對北韓 影響力を 確保하려는 中・蘇의 틈바구니에서 北韓은 加一層의 生存을 為한 努力を 必要로 하게 되었고, 이는 北韓의 對美行態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中・蘇間에 理念紛爭이 심했던 60年代末까지 北韓은 共產主義理念面에서 缺陷이 없음을 實證할 必要性을 느꼈을 것이다. 때로는 教條主義와 修正主義를 모두 非難하기도 하고 主體를 強調하기도 하면서 北韓은 그들의 利益

(30) 北韓은 戰前에 1個年 經濟計劃(1947~48) 및 2個年 經濟計劃(1949~50)을 實施하였고, 戰後에는 3個年計劃(1954~56), 1年을 단축시켰다는 5個年計劃(1957~60), 3年을 연장한 7個年計劃(1961~1970), 6個年計劃(1971~76) 및 現在進行中인 2次 7個年計劃(1978~84) 經濟目標들을 達成하기 위하여 住民들을 끊임없이 動員하여 왔는데, 엄격한 政治的 統制와 思想教育이 없이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을 守護하기 爲하여 苦心하여 오고 있음을 보게 된다.

베트남戰爭이 한창일 때 一面으로는 美國에 對한 聯合作動을 取하자고 主張하기도 하고 中·蘇紛爭으로 對越盟支援이 如意치 못함을 유감스러워 하기도 하였으며, 他一面으로는 北韓이 共產主義理念 및 社會主義陣營의 利益 守護에 充實함을 示威할 必要性을 느낀 것 같다. 「푸에블로」號 事件이나 EC-121機 事件이나 昨年の SR-71機 事件도 中共이나 蘇聯을 意識함이 없이 일으켰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sup>(31)</sup> 北韓의 對中·蘇關係를 볼때, 中·蘇兩國 또는 어느 一國의 對美關係가 惡化된 狀態에 있을 때 北韓의 對美行態도 惡化되는 것을 探知할 수 있다. 이는 더욱 關心을 가지고 注視할 研究分野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듈다.

### 7. 第三世界內에서의 反美鬪爭

北韓은 美國의 第三世界에 對한 政策이나 行爲에 敏感한데, 特히 北韓처럼 美國을 主敵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積極的인 支持를 보낸다. 60年代 前半에는 「쿠바」에 열렬한 支持를 보내다가 越南戰이 擴戰되고 加熱化하자 北韓의 對美記事는 越盟支持 또는 美軍의 敗北記事들로 채워지기始作하였었다. 『勞動新聞』에 실린 對美記事들을 體系의 標本調查方法에 의하여 分析한 바에 의하면 美·「쿠바」關係記事가 1960年에는 對美記事中 頻度面에서 3位로 나타나다가, 61年에는 2位, 그리고 62年에는 駐韓美軍撤收問題記事보 많은 1位를 차지했음을 본다. 그리고 越南戰記事는 頻度數단을 따진다면 1963~1968年까지 단연 1位를 維持하다가 1969年부터는 駐韓美軍撤收要求「이슈」에 밀려 2位로 나타났다.<sup>(32)</sup>

이렇듯 北韓이 他國의 反美鬪爭에 關心을 보이는 것은 反美共同戰線을 구축하고 그들에게 憎惡를 보내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北韓住民들에게 反美意識을 鼓吹시키고 그를 通해 政權維持 및 增產活動에 박차를 加하

(31) 「푸에블로」號 事件發生時의 中·北韓關係는 惡化되어 있었으며 紅衛兵들로부터 修正主義者라는 非難까지 받았으며, EC-121事件前에 中·蘇武力衝突이 있고 中共共產黨 9次大會에서 林彪가 “美帝國主義와 蘇聯修正主義”를 非難한다음날 發生했음을留意할 必要가 있다. 昨年の SR-71機事件은 美國의 中性子彈生產決定 및 「리비아」사건이 있은 지 불과 一週日만에 發生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2) In-Young Chu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1955~1977: A Study of North Korea's Hostility Toward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dissertation(University of Cincinnati, 1977).

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sup>(33)</sup> 다른 理由는 北韓指導層이 스스로를 反美鬪爭의 先鋒으로 自處하고 美國의 勢力を 世界各處에서 弱化시켜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는 點과 關聯하여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지난 10月의 6次 黨大會에서도 再次 強調되었던 ‘反帝革命力量과의 紐帶強化’라는 側面에서 볼 때, 北韓은 他國에서의 反美行爲를 鼓舞하고 그에 많은 期待를 걸고 있음을 보게 된다. 오늘날 北韓이 非同盟運動을 重視하면서 그에 積極 便乘하고 그를 利用하려는 것도 對美政策의 一環으로서 美國勢力を 國際的으로 弱化시키거나 孤立시키려는 目標下에 推進되는 것이라 하겠다.

以上 檢討한 몇가지 主要한 社會心理의 要素들을 念頭에 두고 SR-71機事件을 分析하여 보면, 北韓의 對美行態를 說明하고 「패턴」을 發見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 章에서는 北韓이 美國에 對하여 挑發的으로 나오게 된 背景으로서의 美國外交政策 變化를 살펴보고 이에 對한 北韓의 反應을 알아보고자 한다.

## V. 「레이건」行政府의 對韓半島政策과 北韓의 反應

北韓은 美國의 外交政策에 따라 크게 影響을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美國內의 政權 交替 및 政策變化는 北韓에게도 主要關心事가 된다. 例로 美國의 對蘇나 對中共政策變化는 中·蘇의 影響을 받는 北韓에 對해서도 必然的인 影響을 미친다.

### 1. 「카터」行政府와 「레이건」行政府의 外交政策 比較

「카터」行政府는 越南戰과 「워터·케이트」事件의 餘波로 美國의 치나친 世界的 介入을 避하고 斬新한 政治人을 願하는 美國人們의 與論에 힘입어 登場했던 政權으로서, 美國民들도 自國의 能力界限를 認定하였고 美議會도 行政府의 權限을 縮小시키려 努力할 때 出現했으므로 그러한 雲霧氣가 自然히 外交政策에도 強하게 反映되었다.

(33) 北韓指導層은 増產을 為하여, 「쿠바」人民을 성원하기 為하여, 또는 反美鬪爭을 하는 「베트남」人民들을 為하여라는 式으로 美國과 對決하는 他國의 狀況을 利用하여 生產目標達成을 為한 努力を 하곤 하였다. 이는 韓國을 “美帝의 植民地 狀態”에서 벗어나게 하기 為하여 生產目標를 達成하여야 한다는 方式과 一脈相通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터」行政府는 「닉슨—키신저」式의 外交政策에 批判的인 立場을 取하여, 美·蘇關係를 너무 重시하여 地域的인 問題들까지도 對蘇政策과 連繫性이 있는 것으로 解釋하는 것을 止양하려 努力하였다. 이의 是正을 為하여는 位階的이고 現狀維持的인 強大國政治에서 脱皮하여 相互依存的인 國際社會에서 建設的인 役割을 遂行하여야 한다는 立場을 取하였다.<sup>(34)</sup> 이러한 構想下에서 「카터」行政府는 美·蘇間의 「데 땅뜨」를 繼續追求하고 美·中共關係의 發展에도 努力하였으며, 「캠프·데이비드」協定締結로 中東平和를 摸索하고, 「파나마」條約批准 및 「로데시아」問題解決策 많은 外交의인 努力を 기울였다.

그러나 繼續되는 蘇聯의 軍備增强 및 이를 바탕으로 한 第三世界內 地域紛爭에의 介入, 一貫性이 缺如된 外交政策으로 因한 敵對國과 盟邦들로부터의 信賴喪失, 外交的 經驗不足 및 相衝되는 見解를 지닌 補佐官들의 問題等으로 「카터」大統領은 진통을 겪어야 했었으며, 國內外로 부터 오는 反撥과 比判에 直面하고 石油波動에서 오는 經濟問題 및 「이란」의 美人質事態까지 겹쳐 80年 11月의 大統領選舉에서 美國內의 保守主義思潮에 힘입은 「레이건」에게 크게 敗北를 당했던 것이다.

「레이건」行政府는 越南戰과 「워터게이트」事件의 後遺症이 가시고 蘇聯의 軍備增强과 第三世界內에 直接 또는 代理國을 通한 介入으로 不安과 威脅을 느끼게 된 國內輿論과 「이란」의 「팔레비」政權 붕괴 및 美人質劇으로 「카터」에게 反撥한 사람들과 그의 經濟政策에 失望했던 有權者들의 支持를 얻어豫想을 뒤엎는 壓勝을 거두었던 것이다.

保守主義者이며 反蘇主義者인 「레이건」의 當選은 必然的으로 對外政策의 變化를 招來하였다. 「카터」行政府가 美·蘇間協力의 重要性을 認定하고 第三世界的 政治發展과 南·北間經濟協力이나 人權問題等에 큰 關心을 보인데 比하여, 「레이건」行政府는 反蘇對決的인 立場을 分明히 하고 軍事力を 바탕으로 하여 美國의 優位를 確實히 하며 第三world內의 變化도 蘇聯의 世界的인 膨脹主義와의 連繫에서 보려 하며 南·北協力問題 및 人權問題도 좀 다른 視角에서 解決하려 하는 等의 變硬된 對外政策을追求하고 있다.

「레이건」行政府가 執權한 지 一年이 이미 經過한 지금 評價하여 보면, 처

(34) See Robert W. Tucker, "America in Decline: The Foreign Policy of Maturity," in *Foreign Affairs*, Winter, 1979, pp. 462-64.

음 構想대로 順調롭게 進行되지 못하고 國內外의으로 큰 反撥과 多은 試鍊에 鋒着하여 있음을 보게 되지만, 强硬한 對蘇立場과 軍事力強化로 蘇聯의 膨脹을 沮止하려는 決意에는 根本的인 變化가 없음을 알 수 있다.<sup>(35)</sup>

## 2. 韓·美關係의 強化

北韓이 駐韓美軍의 撤收를 公約한 「카터」行政府의 登場을 歡迎하고 그에 많은 期待를 걸었던 만큼, 「카터」의 再選失敗와 徹底한 反共主義者인 「레이건」이 選出된 것을 반가워 했을리는 萬無이다. 北韓이 가장 願하는 바인 駐韓美軍撤收를 一方의으로 決定해 버린 「카터」行政府의 外交能力도 問題려니와, 韓半島의 戰略的 價值評價에도 問題가 있었던 「카터」行政府의 對韓半島政策은 北韓에 큰 期待와 對美外交攻勢의 機會를 提供한 反面, 韓國民들에게는 커다란 不安全感과 對美不信感을 助長했는가 하면 「카터」行政府의 人權政策까지 겹쳐 韓·美關係는 不便한 關係를 免치 못하였다.

蘇聯의 膨脹政策으로 因한 國際情勢의 惡화와 北韓軍事力의 再評價結果로 79年 7月 「카터」行政府가 駐韓美軍의 撤收를 81년까지 凍結한다고 公式發表하기에 이르렀다. 78年까지도 北韓은 駐韓美軍의 撤收를 實現하기 為해 「부토」나 「티토」等을 通해서 까지 對美外交攻勢를 展開하였다. 北韓이 바라던 主要目標는 그들이 74年 3月 25日 最高人民會議 第5期 第3次會議 許鎮의 報告에서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자고 提議했던 美·北韓單獨平和協定을 締結하려는 것이었다.<sup>(36)</sup>

「레이건」行政府의 登場과 强硬한 對北韓政策은 北韓의 期待를 雾散시켰다. 「레이건」大統領은 選舉前부터 太平洋防衛強化 및 駐韓美軍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韓國政府와의 關係를 牢固히 하겠다고 發言함으로써 처음부터 「카터」大統領의 大韓半島 政策과는 다를 것임을 分明히 하였다.<sup>(37)</sup> 「레이건」이 韓國과의 關係를 높이 評價하는 理由는 傳統的인 親美友邦國家라는 點도 있지만, 그가 重視하는 蘇聯의 膨脹政策을 封鎖하는 데 있어 韓國이 차지하는

(35) 真正한 意味의 平和는 強力한 軍事力의 바탕에서만 可能하며, 美國은 힘을 衰失하였기 때문에 現在의 弱勢에서는 外交政策을 效果적으로 推進할 수 없는 고로 他國의 尊重을 期待하려면 軍事力を 增強하여야 된다는 것이 「레이건」大統領의 立場이다. 그는 또 10年間의 「테탕트」追求에서 美國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 冷戰이 사라진 때가 언제 있었느냐고 反問할 程度로 反蘇觀이 徹底한 人物이다. See *Fortune*, May 19, 1980, pp. 78-81.

(36) 『勞動新聞』, 1974年 3月 26日.

(37) 『韓國日報』, 80年 10月 16日, 1面.

戰略的 位置를 높이 評價한 嘅문으로 볼 수 있다.

「레이건」大統領은 美國을 돋는 友邦國家에 對하여는 積極支援할 方針을 밝혔었는데, 그의 就任後 1年間의 韓·美關係를 評價하여 보면 그대로 順調롭게 進行되었음을 볼 수 있다. 優先 「레이건」大統領의 就任直後인 81年 2月初에 韓·美兩國의 首腦들이 「워싱턴」에서 會談을 할 수 있었던 일은 10·26事態 以後의 兩國關係를 생각할 때 劃期的인 變化였으며 美軍撤收問題를 白紙화시켜버린 것은 北韓側에 加한 一大打擊이 되었다. 全大統領의 2月訪美에 이어 “팀·스피리트 81”이 始作되고 4月에 第13次 韓·美安保會議가 開催되는 等 韓·美兩國間의 協力關係가 強化되자 北韓은 漸次 露骨의 非難을 「레이건」行政府에 퍼붓기 始作하였다.

### 3. 北韓의 反應

北韓은 10·26事態 以後 韓國內에 政治의 空白이 생기고 새로운 政治的 氣運이 胎動하기 始作하자 커다란 期待를 가지고 變化를 利用하려 했던 것 같다. 이는 80年 1月 12日 申鉉礪 總理에게 보낸 李鍾玉의 便紙와 政界 및 宗敎界 人士 11名에게 보낸 金一의 便紙攻勢에서도 나타났었으며, 光州事態를 前後하여 韓國內政情이 不安定했을 때 北韓 「매스컴」의 報道內容 및 割愛한 紙面 等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期間동안 美國의 適切했던 軍事的豫備態勢와 對韓安保公約의 再確認은 北韓으로 하여금 경솔한 軍事的冒險을 하지 못하도록 抑止하는 데 크게 寄與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北韓共產主義者들이 憎惡했음에 틀림없다.

「카터」行政府는 79年初에 北韓의 軍事力增强에 關한 새로운 評價로 因한 駐韓美軍撤收計劃 再調整可能性을 示唆하였으며, 同年 7月 1일의 韓·美共同聲明에서 美軍의 繼續駐屯을 다짐한 데 이어 7月 20일에 81년까지 撤軍을凍結한다는 變更發表를 하자, 北韓은 「카터」行政府의 撤軍計劃이 輿論을 欺瞞하기 為한 術策이었다고 猛非難을 하면서도 計劃대로 撤軍을 하라고 要求하였다. 北韓은 「카터」行政府의 政策變更으로 크게 失望했음에 틀림없으며 對美敵對感이 增大되고 對美信賴度가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던 참에 複雋 反共의이고 保守의 「레이건」이 當選되어 北韓指導層은 더욱 失望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特히 北韓은 「헤이그」將軍이 認準을 為한 上院外交委聽聞會에서 北韓의 南侵威脅으로 因한 駐韓美軍의 繼續의

駐屯必要性 및 韓·美關係의 強化를 力說한 데 對하여, 이는 事實을 歪曲하는 것이며 美軍駐屯을 正當화하기 爲한 口實이라고 非難한 뒤에 「레이건」行政府가 힘에 의한 政策을 追求하려 하지만 軍事的인 威脅으로는 問題들이 解決될 수 없다고 警告하였다. <sup>(38)</sup>

就任을 하자마자 全大統領을 「워싱턴」으로 招請한 「레이건」大統領에 對한 北韓의 挫折感 및 敵對感은 대단히 커던 것으로 보이는 바, 「레이건」行政府를 反動的이고 好戰的이라고 規定짓는가 하면, 힘에 立脚한 世界的 戰略을遂行하는 데 있어 戰略의 要衝地位인 韓國의 重要性을 利用하려 한다고 美國을 非難하였다. <sup>(39)</sup> 非難의 裏面을 살펴보면, 強化되는 韓·美結束에 對한 北韓의 挫折感과 焦躁感이 깊게 깔려 있음을 쉽게感知할 수 있다. 北韓은 「레이건」大統領이 當選直後인 80年 11月 10日 한 記者會見에서 駐韓美軍의 駐屯問題가 더 以上 論議對象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非難하는가 하면, 81年 1月 23日 「와인버그」國務長官이 韓國의 緊急時에 駐韓美陸軍을 包含한 美海·空軍이 配置될 것이라고 美議會에 提出한 報告書에서 밝혔다고 非難하고, 同月 27일에는 駐韓美軍司令官인 「위컴」大將이 駐韓美軍의 戰力強化를 爲해 地上近接支援用인 A-10機들과 新銳機인 F-16戰爆機들을 韓國에 配置할 計劃이라고 報道하면서 美國이 北侵을 爲한 戰爭準備를 한다고 紛彈하였다. <sup>(40)</sup>

「레이건」行政府에 對한 北韓의 評價는 韓·美頂上會談結果로 發表된 共同聲明에 對한 신랄한 非難으로 明確해졌다. 美軍撤收計劃의 白紙화와 韓國軍의 現代化를 爲한 支援 및 對韓安報公約確認 等에 對해서, 北韓은 同聲明이 侵略의이고 韓半島의 分斷을 永久化하기 爲함이라고 紛彈하는가 하면, 「레이건」大統領을 分別없는 戰爭狂이라고 부를 程度로 惡感을 表示했으며, <sup>(41)</sup> 年例의in 大規模의 韓·美合同軍事訓練 「팀·스파리트 81」과 關聯하여 「힘에 立脚한 「레이건」行政府의 對外政策을 ‘戰爭接境政策’追求라고 極度의 신

(38) Foreign Broadcasting Information Service(FBIS), IV, 19 January 1981, p. D7, and 22 January 1981, p. D2; 『勞動新聞』81年 1月 22日.

(39) FBIS, IV, 30 January 1981, p. D1; 『勞動新聞』81年 1月 30日.

(40) Ibid., p. D3.

(41) FBIS, IV, 4 February 1981, p. D1; 19 February 1981, p. D1; 20 February 1981, p. D1.

경질의인 對美誹謗宣傳을 펴 부었다.<sup>(42)</sup> 특히 韓半島事態가 「푸에블로」號事件 以來 가장 緊張된 狀態에 있다고 主張한 北韓의 情勢觀은 宣傳的인 要素가 強한 것을 勘察하고 나서도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 하겠다. 왜냐하면 68年 1月의 韓半島情勢는 高度의 緊張狀態에 있었기 때문이다.

「레이건」行政府 登場 以後 韓·美間의 協力關係가 急進의으로 好轉되고 韓·美空軍力의 強化 等 對北軍事態勢에 萬全을 기하려는 努力이 현저하게 눈에 띠었음을 考慮할 때, 北韓이 韩半島情勢를 「푸에블로」號事件 以來로 가장 惡化된 狀態라고 對美非難을 強化하게 된 것은 一面 理解할 수도 있는 일이다. 71年 美國은 「닉슨·독트린」에 의거하여 駐韓美7師團을 撤收시켰고 뒤이어 中·蘇와 「데탕트」를 追求했었으며, 「카터」大統領은 駐韓美軍의 完全撤收를 計劃했었음에 反해, 「레이건」行政府는 처음부터 오히려 駐韓美軍을 強化하는 方向으로 움직이고 韓國內의 安定에 至大한 關心을 보였기 때문이다. 北韓이 가장 願하는 바가 駐韓美軍撤收와 韓國內의 不安定으로 因한 ‘南朝鮮革命’ 임을 생각할 때, 「레이건」行政府의 對韓半島政策에 크게 失望하고 憎惡을 나타낸 것은 當然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北韓은 「레이건」登場 以後의 韩·美協力關係가 意外로 順調롭고迅速함에 당황하고 焦燥했던 것 같다. 이는 「레이건」行政府가 ‘就任하자마자’ 前行政府의 撤軍政策을 完全히 反轉시켰다는 對美非難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sup>(43)</sup> 「레이건」大統領에 對한 憎惡가 어느 程度인가 하면 그가 昨年 3月 30일에 「워싱턴」에서 被擊당했을 때 이를 統革黨放送을 通해 報道하면서 好戰의이고 人權을 유린하는 「레이건」이 그러한 罰을 받는 것은 當然하다는 式으로 常式에 어긋나는 惡談을 서슴치 않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sup>(44)</sup> 「레이건」大統領의 受難에 對해서 이처럼 惡意에 친 報道를 한 나라는 「호메이니」支配下의 「이란」을 빼놓고는 없었을 것이다. 이를 對美敵對感情이 그만큼 激化되었다고 보아 無妨할 것이다.

韓·美關係의 結束 및 對北韓軍事態勢의 強化는 北韓側에서 볼 때 「레이건」行政府가 至極의 敵對의in 政策을 쓰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 分明하

(42) 特히 3月 12日 ‘2·8文化會館’에서 열린 群衆大會에서 副首相 鄭済基는 「팀·스피리트 81」을 가르켜 「푸에블로」號事件 以來 가장 緊張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美國政策을 신랄하게 非難하였다. FBIS, IV, 13 March 1981, p. D1.

(43) FBIS, IV, 23 March 1981, p. D5.

(44) FBIS, IV, 31 March 1981, p. D1.

며, 北韓의 對美行態도 敵對的인 環境에 對해 敵對的인 反應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이러한 韓半島內의 雾圍氣를 考慮한다면 北韓의 SR-71機에 對한 攻擊事件도 理解가 훨씬 容易해질 것이다.

## VI. SR-71機에 對한 「미사일」攻撃事件

SR-71機事件은 「레이건」行政府가 出帆한 以後 첫번째로 發生한 重大한 北韓의 對美挑發로서 美國의 對韓半島政策變化를 생각할 때 여러 모로 關心의 對象이 되는 事件이었다.

### 1. 事件의 經緯

美國防省 最初發表에 의하면 81年 8月 26日 上午 韓國領空과 公海上空을 高空高速으로 飛行하던 美偵察機 SR-71가 北韓「미사일」의 攻擊을 받은 듯하며, 同機의 乘務員들이 機體로부터 數「마일」떨어진 곳에서 空中爆發하는 것을 目擊했다는 報告를 해 왔다는 것이다. 美國務省도 「미사일」發射를 確認하면서 深刻한 憂慮를 表明하면서, 美國은 그리한 通常의 飛行任務를 繼續할 것이며 操縱士들과 機體의 安全을 爲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이라고 北韓에 警告하였다. <sup>(45)</sup>

SR-71事件은 南地中海에서 美海軍의 F-14機들의 攻擊을 받고 應射하여 두臺의 SU-22「리비아」機들을 擊墜시킨지 一週日 만에 再次發生한 事件으로서, 美國을 緊張시키고 韓半島에 緊張霧圍氣를 造成하였었다. <sup>(46)</sup> 多幸히 被害가 없었기 때문에 더 以上 惡化는 되지 않았지만 美國은 軍事停戰委員會를 召集하여 抗議하고 中共과 蘇聯을 通해 北韓側에 美國의 深刻한 憂慮 및 그리한 危險한 行爲의 反復을 避하도록 傳達하였다. <sup>(47)</sup> 「레이그」國務長官은 또한 偵察飛行을 繼續할 것임을 밝히고, 國防長官「와인버거」도 再次 그리한 攻擊을 받을 境遇에 報復措置를 取하겠다고 警告했으며, 白堊館顧問인 「미즈」는 故意의 攻擊이 確認되면 「미사일」基地를 攻擊할 수도 있다고 示唆함으로써 強硬한 對北韓決意를 表明하였다. <sup>(48)</sup>

(45) 『東亞日報』, 81年 8月 27日, 1面; 『韓國日報』, 81年 8月 29日, 1面.

(46) *New York Times*, August, 27, 1981, p.A12.

(47) *New York Times*, August, 28, 1981, p.A7.

(48) 『東亞日報』, 1981年 8月 29日, 1面.

한편 北韓은 이러한 美國側 抗議 및 警告에 對하여, 28日 發表를 通하여 美軍機 SR-71機가 26日에 北韓領空을 侵入하여 偵察行爲를 했다고 主張하고, 美國側이 말하는 「미사일」攻撃事件은 韓半島의 緊張을 高潮시키고 새로 운 戰爭을 일으키려는 口實을 찾기 為해서 作造된 事件이라고 強力히 否認함과 同時に 操縱士들의 報告에만 根據를 둔 美國側의 主張을 非難하였다. <sup>(49)</sup>

北韓이 主張하듯이 美國이 정말 緊張을 造成하고 戰力を 強化하기 為해서 SR-71事件을 作造했을까? 美國은 高性能 偵察機인 SR-71機에 「미사일」攻撃을 探知할 수 있는 裝置가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그러한 疑問을 一消에 불였지만, 美國側 主張을 64年 8月의 「통킹」灣事件 때 처럼 애매한 點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물론 일순간의 事件이었고 操縱士들의 證言外에는 달리 믿을 증거가 없으니 北韓側의 否認을 確實하게 反駁할 만한 手段이 없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過去의 北韓側 主張들을 참고로 삼을 때 北韓側 主張을 額面 그대로 받아 들이기는 힘들 것 같으며, 特히 事件發生 當時의 國際的인 狀況 等을 考慮해 볼 때 그러한 事件이 일어날 可能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2. 國際的 環境

「레이건」行政府의 對韓半島政策이 北韓을 挫折시키고 不安全感을 增大시켜 對美敵對感을 增大되었음을前述한 바 있거니와, SR-71機事件 같은 大膽한 對美挑發을 說明하기에는 足하지 않다. 이를 理解하기 為해서는 心理的인 要素들 外에, 다른 社會的 또는 狀況的인 要素들을 살펴 보아야 될 것 같다. 即 어떠한 그 때의 狀況이 北韓指導層으로 하여금 그러한 對美挑發을 試圖하게끔 단되었는가 하는 點을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特히 몇 가지 觀點에 留意하면서 살펴보면 理解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첫째, 「레이건」行政府의 對韓半島政策으로 因하여 統一의 展望이 흐려지고, 이로부터 挫折感과 對美敵對感이 增大되었다는 點이다. 統一에 對한 展望이 밝으면 밝을수록 北韓의 對美行態는 慢 敵對의으로 變化하고, 展望이 어두울수록 挑發의 對美行態가 強化됨은 過去의 例에서도 나타났었다.

둘째, 北韓이 가장 敏感한 것 가운데 하나는 競爭關係에 있는 韓國軍의 戰力を 強化하거나 駐韓美軍의 裝備 等을 現代化하는 것인데, 「레이건」行政

---

(49) FBIS, IV, 28 August 1981, p. D1, and Ibid, 31 August 81, p. D1.

府는 駐韓美軍 및 韓國軍에 F-16戰爆機, A-10近接支援, 탱크, 그리고 「미사일」等을 提供할 것을 約束함으로써, 北韓으로 하여금 不安感과 焦躁感을 느끼게 하였다는 點이다. 特히 相應한 만한 蘇聯으로부터의 MIG-23 같은 最新武器들을 받지 못하는 北韓의 立場에서는 美國의 積極的인 對韓軍事支援이 不安하고 憎惡스러웠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趨勢에 制限을 걸고 「레이건」行政政府를 試驗해 보려 했을지도 모른다. 北韓은 反復되는 警告 뒤에 好機가 오면 무모하리만치 大膽한 對美挑發을 試圖하여 왔었음을 고려한 必要가 있다. 또 그러한 모험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美行政府의 政策을正確히 把握할 수 있다는 點도 考慮하여야 될 것이다.

셋째, 70年代 末부터 蘇北韓關係의 緊密化가 눈에 띠이기 始作하였다는 點이다. 北韓이 過去 高度의 對美敵對行態를 誘示하였을 때는 蘇北韓關係가 順調롭거나 親密했을 때 發生했었다는 點이다. 60年代 後半의 對美敵對行態도 蘇聯과의 關係가 65年 初부터 好轉되기 始作한 뒤라는 점이며 소련의 軍經援助가 再開되었다는 點으로, 「푸에블로」號事件 前해에도 많은 蘇聯援助를 받았었다는 點이다.<sup>(50)</sup>

78年 8月의 中·日條約과 同年 12月中旬의 美·中共國交正常化 發表 以後 蘇聯은 美·中·日 三角協力關係 形成에 對應하기 爲한 努力を 強化했으며, 消極의이던 對北韓態度를 變更하여 蘇·北韓親善關係를 強調하고 美國의 對韓半島政策——特히 軍事政策——에 對하여 北韓과 步調을 맞추어 美國을 신랄하게 非難하여 왔다는 點을 생각할 수 있다. 一例로 SR-71機事件이 發生하기 數日前만 하여도 蘇·北韓兩國은 81~85年間의 兩者貿易協商을 平壤에서 締結했는데 이는 76~80年 期間보다 交易量을 40% 增大시키기로 한 것이며 80年 5月의 「티토」大統領葬禮式에 參席時 「金一勃레즈네프」會合이 關係發展에 크게 寄與했다는 보도도 있다.<sup>(51)</sup>

넷째, 中·蘇關係와 關聯하여 北韓의 立場이 두 同盟國사이에서 미묘해 지거나, 對美挑發이 兩國과의 關係에서 어떤 利益을 가져올 수 있다고 判斷할 때 發生할 수 있다는 點이다. 蘇聯과 中共이 서로를 外交·軍事的인 努力を 통해 包圍 또는 逆包圍하려는 國際的狀況에서 北韓의 立場은 兩側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自國의 利益이 虞害되지 않을까 걱정하여 온 것을 볼

(50) *New York Times*, February 2, 1968, p. A15.

(51) 『韓國日報』, 81年 8月 27日, p. 3.

수 있는데, 「아프간」事態나 「베트남」의 「캄보디아」侵攻 또는 中·越戰爭에對한 北韓側의 流動的이고 조심스러운 批判에서도 北韓의 「딜리마」를 엿볼 수 있다.

第6次黨大會에서도 金日成은 帝國主義와 支配主義를 非難하면서 強大國들의 利益追求過程에서 작은 나라들의 利益이 희생될 위험성에 對해 警告한 바 있으며, 特히 美·中共關係에 神經을 쓰는 것 같았다.<sup>(52)</sup> 北韓이 中共의 對外政策에 敏感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며, SR-71機事件前에도 美國의 中性子彈生產決定을 둘러싸고 中共이 찬성하는 態度를 보임으로써 韓半島의 核戰爭威脅을 加重시킬 것이라고 非難한 北韓과 反對立場을 擇했음을 볼 수 있다.<sup>(53)</sup> 이러한 視角에서 볼 때는 SR-71機事件을 中共에 對한 警告 또는 不滿의 表示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越南戰時 中·蘇가 越盟을 合心하여 支援하지 않고 서로의 利益을 優先視한데 對한 北韓의 對美聯合行動促求와 「푸에블로」號 事件을 일으켜 北韓의 反美立場을 分明히 한 일들과 比較하여 볼 때 어떠한 示唆點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北韓의 對美敵對行態를 보면 美國이 國內外의으로 어려운 일에 錚着하여 北韓에 對해 强硬하게 나오기 힘들 때 特히 好戰的인 對美挑發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過去의 「푸에블로」號事件이나 EC-121事件時를 둘이켜 보면 美國은 越南戰遂行에 손발이 놓였고 國內外의으로도 反戰輿論이 强하였다. SR-71機事件發生時狀況을 檢討해 보면 中性子彈生產問題로 因하여 美蘇關係의 緊張은 물론 西歐同盟國들과의 關係가 미묘해지고 「유럽」內 反核平和運動이 거세게 일기始作했을 때라는 點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또한 「리비아」機擊墜事件으로 美國의 神經이 中東·「아프리카」쪽에도 크게 쓸려 있을 때였다는 點이다. 한 군데서 深刻한 問題가 있을 때, 또 다른 紛爭에 휩쓸리지 않기를 美國이 願하리라고 北韓指導層이 計算하였을 것이다. 北韓의 對美行態가 感情的인 面을 많이 包含하고 있지만, 世界超強國인 美國을 刺戟하는 데는 徹底한 計算下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點을 無視할

(51) 『韓國日報』, 81年 8月 27日, p.3.

(52) 金日成은 中央委事業總和報告에서 “帝國主義에 對해서는 어떤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하며… 社會主義나라들과 빨리 불가 담들 및 모든 新興勢力 나라들은 帝國主義와 無原則하게妥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強調하였다. 『勞動新聞』, 1980年 10月 11日, 11面.

(53) FBIS, IV, August 17, 1981, p. D1; 『한국일보』, 81.8.27, 3面.

수 없다.

여섯째, 非同盟運動과 關聯한 北韓의 野心을 생각할 수 있다. 75年 「페루」의 「리마」會議에서 會員國으로 加入되기 以前부터도 北韓은 이 運動의 重要性을 認定하고 그동안 主導的인 役割을 차지 하려는 努力を 繼續하여 왔었다. 非同盟運動이 強한 反美色彩를 띠고 있음을勘案할 때, 北韓의 對美挑發은 同運動內에서의 地位浮上을 計算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極度로 反美的이며 北韓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 「카다피」下의 「리비아」가 一週前에 美國에게 當한 굴욕을 代身 만회하여 줌으로써, 「아랍」圈과의 關係強化 및 自身의 國際的 位置強化를 圖謀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萬一 SR-71機에 對한 攻擊이 成功하고 美國이 效果의 報復에 失敗하였다고 가정하면, 北韓이 非同盟運動 및 第三世界內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커졌을 것이며, 美國에 對한 敵對感을 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韓半島의 緊張이 輸전高潮되었을 것이고 美國이 難處해졌을 것이다. 설사 限定된 報復을 받았다 하더라도 軍事的인 敗北를 감수하고 政治·外交의 面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北韓指導層이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일곱째, 北韓의 過激한 對美敵對行態가 돌연히 發生하기 보다는 緊張이 高潮된 雲霧氣나 北韓側의 事前警告·非難 等이 先行되었을 때 重大挑發事件이 發生한다는 點이다. 「레이건」行政府의 登場以後 北韓은 韓·美間의 政治·安保協力에 對해 크게 反撥하여 왔으며, SR-71機事件 얼마前인 8月 12日에는 北韓의 MIG-21機들이 白翎島上空을 侵犯했던 일이 있었었고, 8月 14일에는 美國 SR-71機가 北韓領空을 8月에만 8回 侵入했다는 北韓側 非難이 있었다.<sup>(54)</sup> 美國側은 偵察飛行이 通常의 임을 是認하나 北韓領域內로 越線하지 않고서 任務를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는데, 問題는 北韓側이 主張하는 12「마일」領域이 美國의 3「마일」公式認定立場과 다르며 特히 77年 8月부터 北韓이 東海와 西海岸의 50「마일」軍事境界線을 一方的으로 主張해 왔다는 點이다. 어쨌든 同事件前에 美·北韓關係가 緊張되었었다는 事實은 北韓의 對美敵對行態를 說明하는 데 包含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北韓은 一面으로는 對美非難을 하면서도 他一面으로는 對美接近을 試圖하여 왔는데, 「레이건」行政府의 冷淡한 反應에 부딪치자 새로운 契

---

(54) FBIS, IV, August 18, 1981, p.D9; New York Times, August 29, 1981, p. A3.

機를 마련하기 위한 속셈에서 그러한 사건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은 美國과 單獨으로 平和協定을 締結하자고 74년 3月 以來로 꾸준히 提議하여 왔었지만 美國은 韓國의 參與없는 對北協商에 應하지 않는다는 立場을 견지해 왔으며, 「레이건」行政府는 더욱 强硬한 對北立場을 取함으로써 北韓은 挫折感과 敵對感을 느껴왔다. 이러한 視角에서 볼 때 SR-71機事件은 美國의 對北韓政策에 變化를 招來하기 위한 積極的인 意圖가 內包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即 美國으로 하여금 北韓問題의 重要性을 새로이 認識시킴과 同時に 對話의 機회를 摸索하고 더 나가서는 關係改善의 可能性까지 엿보려는 것으로도 解釋할 수 있는 것이다.

아홉째, 北韓指導層이 同事件을 利用하여 國內의 政治安定과 經濟發全을 促進시키려는 底意에서 對美挑發을 했으리라는 點을 看過할 수 없다. 80年 10月의 6次黨大會以後 金日成은 自己아들인 金正日을 後繼續로 내세워 그의地位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努力를 傾注하고 있는 바 表面的으로는 조용하지만 많은 問題點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外에 2次 7個年 經濟計劃 目標達成問題도 있어 北韓住民들의 不滿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解消策의 一環으로 反美感情을 鼓吹시키고 不滿을 外敵에게 돌리기 위해서 對美敵對行爲를 計劃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60年代 後半에도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並進이라는 벅찬 課題을 수행해야 했을 때 北韓의 對美行態가 지극히挑發的이 있음을 想起해 볼 必要가 있으며, 金正日에 對한 黨內外의 不滿을 考慮할 때 이러한 對美敵對行爲는 좀 더 理解가 가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挑發行爲가 韓國內에 미치는 惡影響을 考慮했을 可能性도 있다. 政治·經濟的으로 安定을 必要로 하는 韓國에 對해 韓國情勢가 不安함을 國内外에 喚起시킴으로써 發展을 沮害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는 것이다. 北韓은 韓國의 政治安定回復으로 10·26後의 好機가 사라져 감에 크게 失望했을 것이며, 70年代 以後 韓國經濟의 急速한 伸張으로 經濟的劣勢에 몰리고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그러한 發展趨勢를 沮止시킬 必要性을 強하게 느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檢討해 본 열 가지 側面 外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正確한 對美挑發理由는 北韓指導者들이 真相을 發表하지 않고 宣傳色彩가 強한 發表문을 하기 때문에 推測과 狀況分析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實情이다. 그러나 過去에 北韓이 보여준 對美敵對行態들과 比較할 때 心理的인 面

과 社會的인 要素面에서 많은 共通點들을 찾아 볼 수도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點들을 深層研究하여 北韓의 對美行態「패턴」들을 發見하고 活用할 수 있다면 北韓의 對美政策은 물론 對南政策把握 및 對備에도 크게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 VII. 結論

美・北韓關係가 敵對의이라는 事實은 누구나 아는 事實이지만, 北韓이라는 一個小國이 超强大國인 美國에 對해서 重大한 軍事的挑發을 할 수 있다는 事實에 對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흔히들 北韓의 對美挑發行爲에 對해서 理解할 수 없다느니, 豫測할 수 없다느니, 國際的인 行爲規範에 벗어난다느니, 또는 好戰의이라는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오곤 했다.

그러나 北韓의 對美行態를 心理的・理念的인 面과 社會的・狀況의인 諸要素들을 充分히 考慮하면서 면밀히 分析・檢討한다면 複雑 說明이 容易해지고 對美行態에 對한 豫測도 어느 程度는 可能해진다. 北韓의 最大關係事인 自體保存과 社會主義經濟建設 및 韓半島의 共產化統一目標達成에 가장 深刻한 障碍가 되는 것이 美國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對美敵對感情이 크며 때로는 挫折感과 敵意가 爆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北韓도 美國의 軍事力を 尊重하는 고로 아무때나挑發하는 것은 아니며, 自身이 安全할 수 있다고 判斷될 때挑發을 하며 美國에 對應할 能力이 있는 蘇聯의 支援을 期待할 수 있을 때 그러한 行動을 犯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對美敵對行態를 研究하기 為해서 考慮할 것은 美國의 對韓半島政策變化에 北韓이 影響을 必然的으로 받으며, 그에 敏感하게 反應한다는 것이다. 例를 들면 「아이젠하워」行政府末期의 北韓의 對美行態나 「닉슨・독트린」出現 以後의 對美態度 및 「카터」行政府期間의 美・北韓關係를 「존슨」行政府나 「레이건」行政府에 對한 北韓의 對美行態와 比較한다면 큰 差異를 發見할 수 있다는 事實이다. 換言하면 北韓의 對美行態를 제대로 把握하기 為해서는 美國의 對外政策, 特히 對韓半島政策을 먼저 살펴볼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美國의 對蘇政策이나 對韓半島政策만이 北韓의 對美政策에 影響을 미친다는 意味는 아니다. 北韓內의 經濟事情이나 權力鬭爭, 韓國의 政治・經濟發展, 그리고 中蘇紛爭, 非同盟運動趨勢같이 北韓의 對外政策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國內外의 要素들도 充分히 考慮하지 않고서는 北韓의 對美行態를 보다 正確히 理解하기 힘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SR-71機事件이 發生하게 된 遠因들과 近因들을 分析하고 評價함으로써 北韓의 對美行態는 물론 對南行態를 理解하고 「패턴」을 發見하는 데 寄與할 수 있다는 期待에서 本研究가 試圖되었었는데 보다 體系的으로 研究를 進行시켰다면 더 좋은 成果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北韓의 對美·對南政策을 正確히 把握하기 爲해서 北韓이 認知하는 美國外交政策, 美國政策으로 因하여 쌓인 北韓의 挫折感 및 敵對感의 効果의in 測定, 中·蘇間에 處한 北韓의 立場 및 問題點들, 第三世界內의 動向과 北韓과의 關係, 北韓內部의 政治安定度 및 經濟事情, 北韓이 認知하는 韓國의 政治安定 및 經濟發展度, 美國이 處한 國內外의 어려움 等을 면밀히 注視하고 分析·評價함으로써 北韓의 움직임에 効果的으로 餘裕있게 對備할 수도 있으며 이는 對北韓政策樹立에도 寄與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